

영화상설관 ‘행관(幸館)’의 신축과 운영으로 살펴본 ‘부산 극장가(劇場街)’의 변전과 그 의미 연구

김 남 석*

| 목 차 |

- I. 서론 : 20세기 초 부산의 영화가(映畫街)
- II. 공연장 행좌에서 상설영화관 행관으로
- III. 행관의 주변 환경과 극장 내/외부 경관
- IV. 행관의 운영 방식
- V. 결론 : 행좌-행관의 일단락과 새로운 극장 소화관의 탄생

| 국문초록 |

부산의 ‘행좌’는 부산 최초 극장으로 공인되는 극장이다. 1903년부터 행좌의 존재는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좌는 1915년 증축을 통해 새로운 극장 ‘행관’으로 변모한다. 행좌에서 행관으로의 변모는, 비단 한 극장의 변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행관의 탄생은 행좌를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부산 극장가의 신축 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축 붐을 통해 극장가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신축 붐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1900년대 무렵 들어섰던 가부키 식 극장이 몰려나고(증/개축), 그 대신 상설영화관 위주의 극장 풍토가 조성되면서 부산 극장가가 일시적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행관은 보래관, 상생관과 함께 이러한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darkejdi73@naver.com

흐름을 주도하고 대표하는 극장이었다. 1930년 남빈정 대화재로 인해 행관은 다시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펼쳐진 극장 외관의 단장 사업과 맞물려, 행관의 자연스러운 변신은 부산 극장가 변전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1920년대 행관의 사주였던 사쿠라바 후지오(櫻庭藤夫)는 전소된 행관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극장을 기획하는데, 이 극장은 기존 부지가 아닌 보래관 인근 지역에 새로운 극장 이름인 소화관으로 건립되었다. 이후 보래관과 소화관은 행길을 마주보고 위치한 경쟁 극장을 운영되었다. 이후 해방 이후 두 극장은 부산의 중요한 영화적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소화관은 영화관으로서의 수명이 다한 이후에도 여전히 비프 광장을 지키며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주제어: 행좌, 행관, 보래관, 상생관, 소화관, 상설관, 지역극장, 부산

I. 서론 : 20세기 초 부산의 영화가(映畫街)

190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부산의 극장가(혹은 영화가)’¹⁾는, 그 형성과 변천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그 특징 중 하나가 일정한 시기마다 대규모로 재개된 극장 신축(증축 혹은 개축 포함) 붐이었다. 신축 붐은 통상적으로 극장의 용도 변경(극장 운영 변경)과 맞물리기 마련이었고, 대개의 용도 변경은 극장가 전체 패러다임 변화와 병행되곤 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직한 하나의 사례로서 신축 극장 ‘행관’이다.

이러한 용도 변경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한 대표적인 시기가 1910년

1)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던 행정/변천정/남빈정/장수동 등에는 극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극장가(극장 거리)를 형성되었다. 이 극장가는 1920~3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극장들의 거리로 변모하였다(『부산일보』 1937. 3. 27. 3쪽, ‘명장화(明粧化)된 부산의 영화가; 보래관과 상생관의 신축, 당당한 3층의 근대 건축미 실현’).

대 중반이다. 1910년대 부산 극장가에는 기존 극장(대부분 20세기 초에 운영되던 일본식 가부키 극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새로운 극장을 축조하여 시류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부산 극장가의 중심으로 편입하거나 재도약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극장들이 속속 출현했다. 물론 이 시기 신/개축 극장들은 극장 재개장과 용도 변경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극장들이었고, 이러한 극장 건립 사례에는 일본전관거류지에서 버젓한 식민지로 변모한 부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상권 장악 의지도 함께 배어들어 있었다.

한편 극장가의 일신 풍조는 점차 영화관의 증설과 파급으로 이어졌다. 영화상설관의 증설 과정과 변모 양상은 부산 극장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식민지 이전인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 시절 부산에 축조되었던 일본인 극장들은, 일본 전통연희나 신과극 공연을 위한 무대(대표적인 경우가 ‘화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영화 상영은 부분적으로 시행).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접어들면서 극장업자들이 기존의 극장들을 영화(활동사진) 관람(조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극장의 개념(존립과 운영 이유)을 연극(무대극) 공연장에서 영화 관람관으로 이전하는데 주력하는 듯 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상호 맞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산 극장가의 새로운 변화가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행관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극장 중 하나로 파악된다(최초의 용도 변경 사례로는 흔히 ‘옥관’이 거론된다). 행관은 일본전관거류지 시절부터 최고(最古)의 극장으로 간주되던 행좌를 과감하게 용도 폐기하고 신축한 극장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역사)이 새로운 현실과 접변하는 대목(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산의 극장(가)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또 하나의 이유로, 이러한 행

관의 변화를 주도한 사주인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가 부산 극장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운영했던 5인 경영자 중 수뇌 격 인물이었으며, 여타의 다수 사업체를 통해 부산의 상권과 재력을 독점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업과 재계의 흐름에 밝았던 사업가였기에, 행관 신축과 관련된 그의 사업적 선택은 남다른 목표와 교묘한 의도를 수반한 선택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극장(영화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그러하듯, 부산 극장가의 극장들에 대한 논의도 현재까지는 소략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행관’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희소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홍영철의 연구를 들 수 있을 따름이다. 홍영철은 행좌를 ‘부산 최초의 극장’으로, 그리고 행관을 ‘발성영화 최초 상영 극장’으로 의미 부여하며 관련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²⁾ 홍영철은 두 극장을 별개로 다루면서—그러니까 행관은 시기상으로 육관로부터 시작되는 ‘활동사진 상설관 시대’의 극장으로 분류—각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행좌가 부산 극장의 시초임을 밝혔고,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세부 사안을 내놓았다. 행관의 경우에도 설득력 있게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김남석도 행좌와 행관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김남석의 경우에는 관련 기술 분량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민 치하 조선의 전체 지역 극장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요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구했다고 할 수는 없다.³⁾

두 연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극장을 발굴하고 또 일정 부분 알리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선행 연구 자체만으로는 명확한 논점을 생성하지 못했으며 적지 않은 한계를 수반한 초창기 연구에 머물

2) 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2014, 68~133쪽.

3) 김남석, 『조선의 지역 극장』, 연극과인간, 2018, 136~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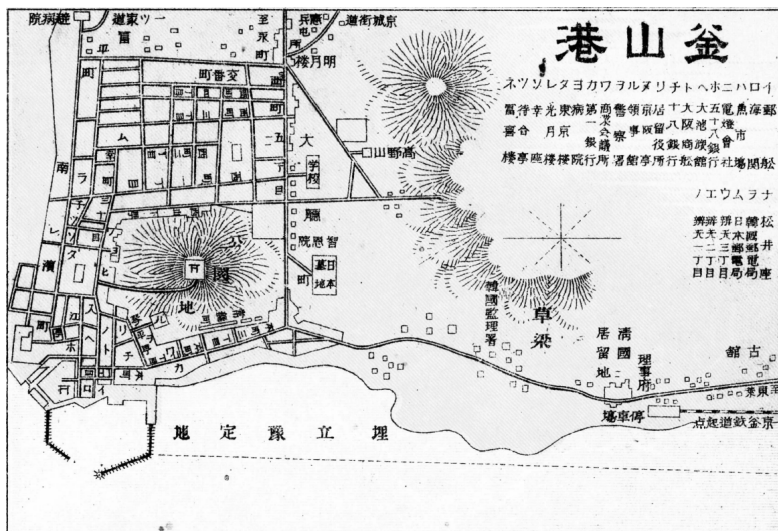
렸다는 약점을 간과하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흥영철 연구의 경우에도, 행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구하고 그 의미와 의의를 도출해야 하는 연구 상의 한계를 남겨둔 바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행관의 설립 시기와 신축 사유, 극장 위치와 내외 특징, 주변 환경과 관련 인프라, 해체 상황과 그 여파, 새로운 극장의 탄생과 이전 극장의 잔재 등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확장된 의의를 결부시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공연장 행좌에서 상설영화관 행관으로

현재까지는 부산 최초의 근대식 극장은 ‘행좌(幸座)’로 공인되고 있다. 흥영철이 1903년 행좌 운영되던 행좌의 실체를 밝혀내는 순간, 이러한 세간의 상식은 보편적 사실(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가 확정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다.⁴⁾ 하지만 실제 행좌는 1903년 이전부터 운영되던 극장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이전부터 더 많은 극장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03년에 이미 존재했다는 행좌의 위치는 비교적 명증하게 확인되고 있다. 행좌는 행정과 서정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간행된 각종 지도에서 별도의 일러두기를 통해 그 위치를 비정할 정도로 주요한 건축물(이정표)로 다루어지고 있다. 1908년 지도에서도 그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할 정도로, 일본전관거류지 내 주목받는 시설물이자 ‘랜드마크’로서의 건축물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4) 흥영철, 앞의 책, 2014, 69쪽.



[그림 1] 일본 전관 거류지 내 행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⁵⁾

행좌는 1915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915년 이후에는 개축을 단행하여 행관이 되었다. 홍영철은 개축 이유를 극장 시설의 ‘노후’에서 찾고 있다. 홍영철은 당시 행좌의 사주가 노후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기존 행좌를 철거한 후에, 주변 지대를 넓게 구입하여 120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그 위에 행관을 건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⁶⁾ 그래서 행좌와 행관은 동일한 기원을 지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극장으로 취급되기도 한다.⁷⁾

실제로 관련 문헌을 확인하면 행좌는 1915년 10월 개축을 단행하여 ‘모범적인 활동사진 상설관’으로의 변신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영화

5) 『한국대지도(부산항)』,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1908; 김기혁, 『부산 고지도』, 부산광역시, 2008, 249면에서 재인용.

6) 홍영철, 앞의 책, 2014, 127~128쪽.

7) 홍영철은 행좌는 ‘부산 최초의 극장’으로, 행관은 ‘발성 영화가 처음 상영된 극장’으로 그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홍영철, 앞의 책, 2014, 69~134쪽).

상설관 행관(幸館)으로 변모하였다.⁸⁾ 하지만 이러한 변모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행좌가 행관으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일단,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해당하는 1910년대 중반, 특히 1914~1916년에 이르는 시점은 기존 부산 극장가가 크게 변동하는 시기 중 하나였다. 당시 대표적인 극장의 사례를 보자. ‘나니와부시(浪花節) 상설관’이었던 변천좌(辨天座)가 ‘상생관’으로 변모하는 시점이 1916년(10월 31일 개관)이었다.⁹⁾ 보래관(寶來館)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석(寄席)’ 보래관에서 탈피하여 1916년 9월 신축을 시작하여 12월에 새로운 극장을 준공 완료하면서 상설활동사진관으로 변모했는데, 이러한 시점이 또한 이 무렵이었다.¹⁰⁾

1914~1916에 새롭게 개관하는 행관, 보래관, 상생관은 기존 행좌, ‘기석 보래관’, ‘나니와부시 상설관 변천좌’에서 전격적인 변화를 단행하여 탄생한 극장이었으며, 이전 경영 목표를 일신하여 새롭게 등장한 영화상설관이었다. 이러한 변모 이후 이 세 극장은 부산의 3대 영화관으로 부상하면서, 부산 극장가 전체의 경영 기조를 영화 상영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¹¹⁾ 이 세 극장은 경영 면모와 지역 상징성의 측면에서도 1920년대 부산 극장가를 대표하는 ‘활동(영화) 상설관’으로 이름이 높았으며,¹²⁾ 월등히 높은 관객 점유율로 여타 극장

8) 『부산일보』 1915. 10. 15. 5쪽, ‘행좌[幸座] 개축공사; 모범적 활동 선진 상설관’.

9) 『부산일보』 1916. 10. 25. 7쪽, ‘본정 1정목 상생관[相生館] 개관식; 오는 31일 거행’.

10) 『부산일보』 1916. 9. 29.(조간) 7쪽, ‘보래관[寶來館] 신축’. 『부산일보』 1916. 12. 27. 5쪽, ‘보래관[寶來館]의 준공’.

11) 『부산일보』 1925. 9. 4. 4면, ‘3관의 명화’.

12) 1920년대 『부산일보』에는 ‘3관의 명화’라는 제명으로, ‘보래관’, ‘상생관’ 그리고 ‘행관’의 영화 소개를 위한 지면이 별도로 할애되기도 했다(『부산일보』 1925. 9. 4. 4쪽, ‘3관의 명화’.). 이러한 주목은 1920년대 내내 유지되었다(『부산일보』 1925. 11. 19. 7쪽, ‘키네마; 행관, 상생관, 보래관의 상영소식’. 『부산일보』 1930. 7. 4. 4쪽, ‘영화계; 보래관, 행관, 상생관’.).

(영화관 이외의 극장까지 포함)들을 압도한 ‘부산의 대표적 영화상설관’으로 운영되었다.¹³⁾ 그러니 이러한 극장(들)이 1915~1916년 무렵에 일제히 영화관으로 변신을 도모했으며 그 결과물로서 대표 극장이 된 공통점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이러한 극장들이 대대적으로 극장 변화를 선언(공표)한 1910년대 중반 시점 역시 주목되는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환 사례는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20세기 초에 부산에서 운영되었던 극장 옥관(旭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1912년 9월에 개관한 옥관은 부산 내에서 가장 먼저 활동사진관을 표방한 극장이기도 했다.¹⁴⁾ 그런데 1916년 화재로 소실되자 재건축 모델로 다시 행관을 선택하여 영화관으로서 극장 경영에 치중했던 사례이다.¹⁵⁾ 거꾸로 당시 행관의 행보가 파격적이고 모범적이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 결국 옥관은 이미 1914년에 상설관을 표방한 극장이었지만,¹⁶⁾ 1915년 행좌의 개축과 행관의 탄생을 목격한 이후에는 더욱 확고하게 영화상설관으로의 경영 논리를 강화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화재라는 사고가 비록 개입하기는 했지만, 사고 후에도 영화상설관의 위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옥관 역시 1915~1916년경에 활동상설관으로서의 경영 체제를 재천명한 사례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듯 부산 최초의 영화상설관마저 1916년 이후의 행관의 위상과 비중에 동참해야 할 정도로, 행관의 변화는 주목되는 변

13) 세 극장은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시기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부산일보』 1917. 2. 5. 3쪽, ‘연예풍[演藝風] 부록 ; 행관, 상생관, 생구일좌, 동양좌’.).

14) 개관 당시에는 연극 극장으로 출발했지만, 일단 1914년 영화활동상설관으로 변모했다.

15) 『부산일보』 1916. 4. 28. 5쪽, ‘활동사진상설관 옥관[旭館] 재건축 ; 행관[幸館] 이상을 건축’.

16) 홍영철, 앞의 책, 2014, 103쪽.

화였다고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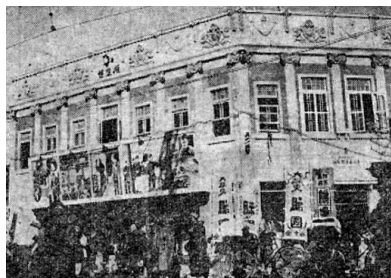
상생관으로 변모하기 이전의 변천좌는 ‘나니와부시(浪花節)’이라는 일본 전통 연희를 공연하는 극장이었고, 보래관은 ‘기석’이 의미하듯 “재담·만담·야담 등을 공연하는 대중(적) 연예장”으로서의 운영에 주력한 극장이었다. 행좌 역시 각종 행사와 무대 연극 그리고 일본 대중 문화가 시행되는 극장이었다가(행좌에서는 활동사진이 상영되기도 했다), 결국에는 신축되어 행관이라는 근대식 영화관으로서의 면모를 담보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이러한 변화는 부산 극장가에서 1910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공유점을 통해, 이 시기에 부산의 전통적인 극장을 영화관(활동상설관)으로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변화 동력이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중에 행좌의 경우, 노후 시설 개선이 해당 이유 중 일부로 포함될 수는 있다. 즉 19세기 후반에 이미 부산(지금의 남포동과 자갈치 시장 일대)은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로 조차되었기 때문에, 부산 거주 일본인을 위한 극장 시설이 설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른 시기의 신축과 설비로 인해 극장의 내구성이 다하는 시간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를 일단 1910년대 상정할 수는 있겠다. 즉 1910년대는 물리적 의미에서 극장 교체기에 해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시기적 요인은 이밖에도 더 폭넓게 상정할 수 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부산을 비롯한 조선 전 영토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인들은 조계지에서 제한적으로 살아야 했던 과거의 시간을 더욱 과감하게 확장하여 조선 전역에 자신들의 가업과 사업을 일으키는 데에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선으로의 이주자들이 더욱 늘어났고 사업 분야 역시 확산 일로였다. 인구 증가와 자본/유통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유흥/오락 시설로서 극장(업)의 활기를 부채질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은 일본인들에게는 조선에서의 사업(극장업)에 매진할 수 있는 호기이자 전환점이 아닐 수 없었다.

문제는 일찍부터 일본인 거류(조차) 지역이었던 부산에는 극장가가 형성될 정도로 ‘일류 극장’이 많았으며, 극장 증가 추세는 1920~30년대를 지나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경쟁이 심했던 점이다. 1910년대의 시점에서 이리한 가중되는 경쟁은 결국 극장주들로 하여금 기존의 극장과 차별화되는 극장을 지어야 하는 명제를 부여하였고, 상생관이나 보래관처럼 다른 극장과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극장 건립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용도와 시설).



[그림 2] 미려한 외관으로 주목받은
상생관¹⁷⁾



[그림 3] 정면 풍경이 인상 깊은 보래관¹⁸⁾

그리고 이러한 극장의 개성은 점차 건물 외관 단장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행좌에서 행관으로 변모하는 이유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극장(들)의 변화 요인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세련되고 개성적인 극장을 지어야 하는 안팎의 필요가 증가한 것이다. 그 필요의 결과가 외면적으로는 극장의 개축이었고, 내적으로는 극장 운영 방식(경영 방침)의 변화

17)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검색일 : 2018.7.16.).

18) 『보래관』,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75610&cid=49330&categoryId=49330>(검색일 : 2018.7.16.).

였다. 외적 사유로 본다면, 행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이 필요했던 이유는 기존의 낡은 시설을 교체였다고 해야 한다. 미비한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건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대신 행좌를 허문 자리에 행관을 다시 지어 그 연속성을 이어갔고, 부산 극장사에 첫 머리를 장식한 행좌인 만큼, 도전적인 포부로 영화 상영(관)에 매진했던 것이다. 영화의 도래와 융성은 다른 극장들을 긴장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었고, 영화상설관 보래관과 상생관의 탄생을 부추길 정도로 상당한 파급력을 형성했다.

1910년대 행관을 비롯한 일련의 상설 영화관 탄생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극장 구도의 개편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관람처로서의 극장이 아니라, 개성과 세련미를 살리고 극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극장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었다. 영화 중심의 극장으로의 변모와, 보다 극장다운 극장으로의 변화가 결국 1910년대 부산 극장가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의 일부로서 행관이 탄생한 셈이다.

정리하면, 이 시기 극장(주)들 사이에는 스스로 변모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통용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영화라는 매체의 급상승과 이를 염원하는 관객들의 요구였다고 해야 한다. 특히 상설영화관을 표방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의도는, 행좌가 행관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Ⅲ. 행관의 주변 환경과 극장 내/외부 경관

1. 화양절충식 건축 양식으로서 행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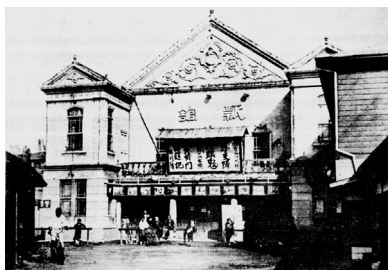
전술한 대로, 부산의 최고(最古) 극장이었던 행좌는 1915년 신축을

단행하고 행관으로 변모를 선언했다.¹⁹⁾ 신축 행관은 당시에 ‘조선 제일’을 자랑할 정도로 선진적인 영화관이었다. 노후된 행좌는 안정상 위험이 높아 현실적인 극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량으로 새로운 극장(영화상설관)을 건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는 행관의 외관과 규모 그리고 역할을 결정했다.

행좌는 총 건평 120평의 2층 구조의 건축물이었다. 용도는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영화관이었고, 공사 비용은 1만 2000원이었다. 일찍 상설관이 되는 바람에 옥관이나 보래관 혹은 그 이후의 상생관 등과 함께 초기 상설영화관으로서의 장점을 취득한 극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행관의 건축 양식은 독특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좌우 침탑을 거느린 수평적으로 세 부분 분할이 가능한 건물이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ㅁ’의 형상을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와 비슷한 건물로는 인천 표관을 들 수 있다.²⁰⁾



[그림 4] 행관의 모습²¹⁾



[그림 5] 표관의 모습²²⁾

-
- 19) 『부산일보』 1915. 10. 25. 3쪽, ‘조선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활동상설관 ; 부산 행관의 신축’.
- 20) 『인천일보』 2016. 12. 21. ‘사진에 비친 인천 100년(22)’ <http://www.incheonilbo.com> (검색일: 2018.7.16.).
- 21) 김승, 『부산대관(신편)』, 선인, 2010, 591쪽.
- 22) 『인천일보』 2016. 12. 21. ‘사진에 비친 인천 100년(22)’ <http://www.incheonilbo.com> (검색일: 2018.7.16.).

두 극장은 건축 방식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설립 시기 역시 유사했다. 표관은 1914년 10월(31일)에 등장한 극장이었다.²³⁾ 1910년대는 부산에서 영화상설관이 속속 등장하는 시점이었고, 비록 인천이지만 1910년대 표관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동참한 극장 중 하나였다. 부산과 인천은 최초 3대 개항장에 속하는 도시였고, 일본인들의 비율이 높았던 지역이었으며, 일찍부터 극장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공통적 특질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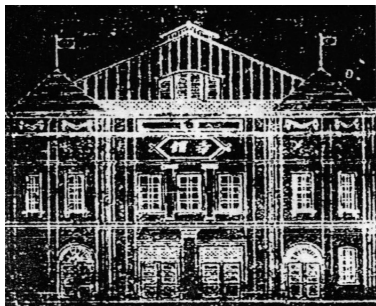
또한 두 극장은 양 쪽 첨탑을 거느리고 중앙의 메인 건축물에 입구를 설치한 설계 방식에서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당연히 중앙 입구는 홍보와 전시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위의 두 사진은 이러한 두 극장의 흡사한 구조를 간접적으로 일치시켜 보여주고 있다.

두 극장의 실체(유사성)는 홍영철이 발굴한 설계 도면으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홍영철이 발굴한 행관의 설계도—최초 설계 당시—는 표관의 구조와 더욱 흡사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표관과 행관의 공통점은 삼각 축을 중심으로 한 건물 구도와 첨탑 양식의 지붕 디자인이었다. 두 극장의 본질적 유사성은 동일 시점(1910년대), 동일 기원(일본), 동일 경영자(일본인)의 측면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홍영철은 행관의 설계 도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홍영철은 행관의 건축 양식을 기본적으로 ‘화양절충식’으로 파악했다.²⁴⁾ 화양절충식은 일본의 근대화 시점에서 고유의 건축 양식과 서구에서 유래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형성된 양식을 가리킨다.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에서는 서구 문명의 이입과 유행에 따라 이러한 화양절충식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

23) 『매일신보』 1914. 11. 3. 3쪽, ‘인천활동사진관의 대성황’.

24) 홍영철, 위의 책, 2014, 127쪽.

[그림 6] 행관의 도면과 설명²⁵⁾

“극장 외형의 좌우 침탑의 분위기는 러시아풍을 연상시키며 극장 몸통은 르네상스식에 속하고 있어 이러한 유형은 양풍을 가미한 서양 건축 도입 시기의 일본 절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인들이 부산에 세운 극장 중 가장 나아 보이는 건물의 하나이다.”

은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서 이러한 양식을 적극 개발하고 수용했으며, 전관거류지를 거쳐 식민지로 변전하는 조선에 그 결과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표관 역시 이러한 화양절충양식에 입각하여 기획·축조된 건물이었다.²⁶⁾ 이러한 건축 양식은 1860~1920년대까지 일본이 수용한 근대 건축 양식을 전래의 건축 양식과 혼합하는 과정에서 중도적으로 탄생한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83년 인천영사관을 필두로 하여 조선 내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유행한 건축 양식이기도 했다.²⁷⁾ 이러한 건축 양식이 인천 표관뿐만 아니라, 부산 행관에서도 1910년대 중반에 나타난 셈인데, 그만큼 초기 극장의 생성과 유행에 일본(인)의 의도가 깊게 관여했다는 새삼스러운 증거이기도 하다.

2. 남빈정의 중심 극장으로 부상하는 행관

행관의 전신 행좌는 부산부 행정 1정목에 위치한 극장이었다.²⁸⁾ 전술

25) 홍영철, 앞의 책, 2014, 127쪽.

26) 표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련 저술을 참조했다(김남석, 『인천 표관 연구』, 『민족문화연구』 71, 2016, 208쪽).

27) 서민원, 『인천 조계지 형성과정과 건축 양식의 특성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11, 2009, 56~58쪽.

28) 『부산일보』 1915. 10. 25. 3쪽, ‘조선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활동상설관; 부산 행관의

한 대로 행좌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요량으로 새로운 극장 행관으로 신축되었다. 행관 역시 행좌의 주소와 기본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지번의 변화만 예상된다), 1918년 무렵과 1930년 무렵에는 행관의 주소를 남빈정으로 인식하는 기사도 나타났다.²⁹⁾ 이러한 인식 변화는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주소 변경으로 확인된다. 즉 행관의 행정 구역이 남빈정으로 변모한다.

행관은 1910~20년대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상설관으로 운영되었으며, 당시에는 부산 주민들에게 ‘3대 영화관’ 중 하나로 공인되기도 했다.³⁰⁾ 행관의 마지막은 화재와 관련된다. 1930년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을 전소시키는 사건이 일어났고(이때 화재 발생 지역은 남빈정으로 기록된다), 이 여파로 행관과 일대 건물이 전소된다.

특히 화재는 행관에서 일어났는데, 그 발화 원인은 필름저장소에서 나카무라 사부로(中村三郎)이라는 기사가 필름을 다루다가 전등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이 화재는 행관을 먼저 전소시키고 그 이웃에 위치한 사쿠라바(櫻庭)의 집(사택)과 일본 요리집 ‘우메노야(梅家)’와 ‘히로갓스’ 등을 세 채의 집을 반소시켰다. 특히 행관이 건물 전체가 전소되면서 필름뿐만 아니라 영사기계와 비품 등을 포함하여 20여 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남겼다. 이때 행관 일대, 그러니까 남빈정, 변천정 일대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암흑천지’가 되었고 시민들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그야말로 한 극장의 붕괴가 가져온 엄청난 피해였다고 해야 한다.³¹⁾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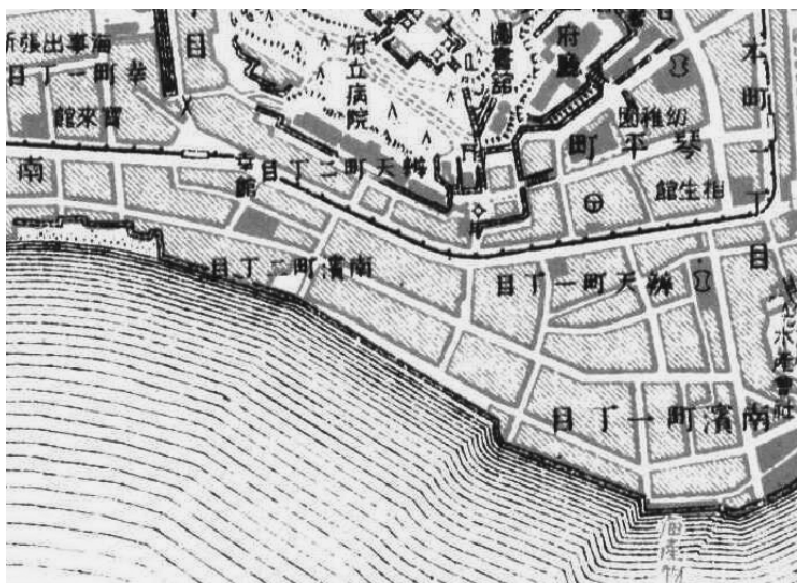
29) 『부산일보』 1918. 2. 13. 4쪽, ‘철도종사원의 위안회 ; 행관에서 개최’. 『동아일보』 1930. 11. 12. 3쪽, ‘부산 남빈정에 대화(大火) 행관(幸館) 전소3호 반소’.

30) 『부산일보』 1928. 10. 5. 6쪽, ‘가을바람의 중심에 서서 (1) 부산 키네마 작품 회활극 [喜活劇] 『부서진 협정』’.

31)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했다(『동아일보』 1930. 11. 12. 3쪽, ‘부산 남빈정에 대화(大火) 행관(幸館) 전소3호 반소’).

다음의 지도는 이러한 피해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행관은 부산의 극장가가 집중되어 있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도로는 부산역으로 이어지는 메인 도로로, 변천정-남빈정-행정을 관통하면서 상생관(변천좌의 후신, 변천정 혹은 금평정 소재, 지도 우측)-행관(남빈정 2정목 소재, 지도 중앙)-보래관(행정 1정목 소재, 지도 좌측)을 지나고 있다.



[그림 7] 행관의 위치를 보여주는 변천정/남빈정/행정 일대의 지도
(대정 8년, 1919년)

전술한 대로, 이 세 극장은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행관이 전소된 이후에는 소화관이 이 위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른바 부산의 주요 극장이 밀집된 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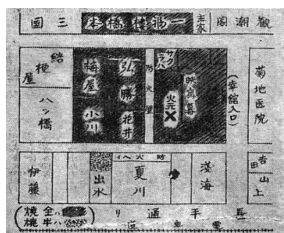
로(유형/무형의 의미에서)를 부산의 극장가(혹은 영화가)라고 불렀으며, 개념적으로도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3. 남빈정의 대화재와 행관의 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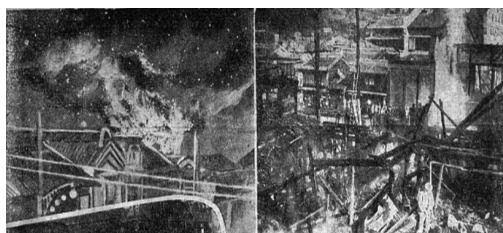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에 이 거리는 일본인 상권이 차지한 곳으로, 일본인 거류민과 일반 거주민을 위한 극장 시설이 집중된 곳이기도 했다. 메인 도로에는 전차가 운행했고, 상가와 건물이 늘어서 있었으며, 부청으로 대변되는 관공서 거리부터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니 유효 관객으로서 잠재적 극장 관객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화재 기사에서 확인되듯, 각종 건물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화재 기사에서 언급된 매가(梅家)나 ‘히로자스’ 등은 이러한 밀집 상가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판단된다. 다음의 사진 역시 당시 행정 일대의 상가 밀집도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래 우측 사진은 불타고 있는 행관 일대의 광경을 담고 있는데, 해당 사진 속에서 행관의 모습이 담겨 있다.

더구나 다음(좌측) 지도와 관련 기사를 참조하면, 흥미롭게도 당시 행관의 입지를 한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행관의 위치와 주변



[그림 9] 행관 일대 화재 장면(사진)

동일 화재를 다룬 『부산일보』 기사를 참조하면, 해당 화재는 행관에
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변 건물 7동 12호가 전소되었고, 1동 1호가
반소되는 참상이 벌어졌다.³²⁾ 더구나 이 화재는 영사 도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행관의 문제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말한 대
로, 이러한 주변 상황은 행관을 중심으로 밀집된 도시 시설을 입증한다
고 하겠다.

위 지도에서 행관 ‘입구’ 행길 맞은편에서는 국지의원(菊地医院, 혹
은 국지병원)이 자리 잡고 있고, 근처에 ‘주가(밀주가)’도 위치하고 있
어, 행관 근처에 일반 상가가 인접한 구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관조각(觀潮閣)이나 권번 등도 자리하고 있었고,³³⁾ 근처에는
부립병원이 위치해 있었다.

남빈정 관조각은 1928년에 화려하게 등장한 명소로,³⁴⁾ 1928~1930년
에 이곳에서는 사은회,³⁵⁾ 번영회,³⁶⁾ 송별회³⁷⁾ 등이 활발하게 개최된 바
있다. 변천정에 위치한 부립병원은 1915년 8만여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정도로 각광 받는 의료 기관이었다.³⁸⁾ 화재로 인해 부립병원 환자
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지병원 역시 화재 최 근접 건
물 중 하나여서 심각한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지도 하단부에 표기된 ‘장수통(長水通)’은 1930년대 부산 최대의 번

32) 『부산일보』 1930. 11. 12. 4쪽, ‘부산 긴좌[銀座]의 변화가 맹화에 휩싸여’.

33) 『부산일보』 1930. 11. 12. 4쪽, ‘부립병원에서도 환자가 허둥대다 용두산 뒤쪽으로 피난국지[菊池]병원도 위험에 처하다’.

34) 『부산일보』 1928. 5. 10. 4쪽, ‘방천각[芳千閣]의 부흥 ; 관조각[觀潮閣] 화려하게 개업’.

35) 『부산일보』 1928. 10. 5. 6쪽, ‘봉브도이[蜂ブドー] 사은회 ; 관조각[觀潮閣]에서 성대한 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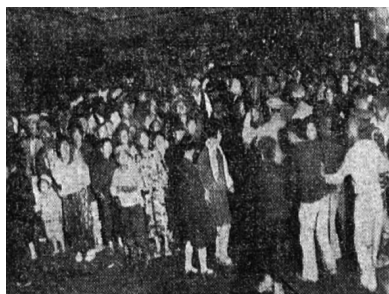
36) 『부산일보』 1929. 4. 23. 3쪽, ‘부산번영회 예회[例會], 25일 저녁 관조각[觀潮閣]에서 열리다’.

37) 『부산일보』 1930. 7. 5. 4쪽, ‘서원송별회 관조각[觀潮閣]에서’.

38) 『부산일보』 1916. 1. 15. 5쪽, ‘8만여의 환자 ; 작년(1915) 중의 부립병원’.

화가(‘중심지대’)로 꼽히는 지역으로,³⁹⁾ 흔히 부산의 ‘긴자’(銀座)로 불리는 곳이었다.⁴⁰⁾

일제 강점기 장수통은 훗날 ‘광복동’으로 명칭이 변화하는데,⁴¹⁾ 1930년대 당시에도 야시(夜市)로 이름이 높았던 상가였다.⁴²⁾ 더구나 장수통은 일반 차량과 전차 그리고 행인이 모두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⁴³⁾ 전차 복선(화)을 추진할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⁴⁴⁾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나, 전차와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장수통은 유동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그림 10] 1930년 행관 화재 당시 장수통에 모인 사람들⁴⁵⁾



[그림 11] 약종가 대흑남해당 (大黑南海堂) 전면 장수통 풍경⁴⁶⁾

더구나 장수통에는 야시뿐만 아니라, 철물점,⁴⁷⁾ 양품점,⁴⁸⁾ 시계점,⁴⁹⁾

39) 『동아일보』 1936. 1. 12. 7쪽, ‘대도시의 부세확장안(府勢擴張案) 11’.

40) 『동아일보』 1939. 5. 7. 7쪽, ‘부산 변화가 장수통 재차(諸車) 야간 통행금지’.

41) 『경향신문』 1974. 9. 23. 4쪽, ‘근세풍물야화(近世風物夜話) 20 기생’.

42) 『동아일보』 1934. 11. 19. 3쪽, ‘대창정(大倉町) 측에서 야시(夜市) 이전 운동’.

43) 『동아일보』 1930. 3. 29. 7쪽, ‘질주자동차(疾走自動車) 전차(電車)와 충돌’. 『동아일보』 1940. 2. 2. 3쪽, ‘전차 충돌로 승객 1명 중상’.

44) 『동아일보』 1932. 8. 25. 4쪽, ‘부산의 전차 복선(復線)을 착수’.

45) 『부산일보』 1930. 11. 12. 4쪽, ‘부산 긴좌[銀座]의 변화가 맹화에 휩싸여’.

46) 『동아일보』 1930. 1. 10. 5쪽, ‘사진 대흑남해당영업소’.

47) 『동아일보』 1938. 6. 5. 7쪽, ‘훈계하는 구장(區長)에게 폭행하려다 피체(被逮)’.

약방⁵⁰⁾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위의 사진은 1930년 남빈정 화재 당시 장수통 야시에서 걱정스럽게 그 광경을 바라보는 군중들로, 당시 야시에 모인 사람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행관은 해안 방향으로는 상가를 끼고 있었고, 도로 방향으로는 장수통에 근접해 있었던 지역 구조라고 하겠다. 전술한 대로 장수통은 부산 내 상가와 도로 그리고 유동 인구와 물자 운송을 뒷받침하는 메인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행관의 가장 큰 이점은 이러한 장수통을 끼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좌측으로는 보래관, 우측으로는 상생관과 경쟁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 수 있었다.

4. 1929~1930년 무렵의 행관과 지역 인프라

1929년에서 1930년에 간행된 다음 지도를 중심으로, 행관과 그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지도는 1929~30년에 간행된 부산(부)의 지도로, 편의상 남빈정 일대를 발체한 대목이다. 위 지도의 우편에는 (부산)부립병원이 위치해 있고, 좌편에는 현재의 자갈치 시장 앞 바다에 해당하는 바다가 있었다. 그 사이에 메인 도로(장수통)가 있고, 그 좌우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형국이었다.

한편, 아래의 지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도(발체 대목)의 상단에 위치한 보래관(寶來館)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하단에 위치한 행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그것이다.

48) 『동아일보』 1938. 12. 8. 7쪽, ‘원가육십할폭리(原價六十割暴利) 악덕 상인 적발 부산서 엄중 경고’.

49) 『부산일보』 1937. 11. 13. 7쪽, ‘내객(來客)의 백금시계(白金時計를 ‘크롬(제)’로 교환 사취’.

50) 『동아일보』 1930. 1. 10. 5쪽, ‘조선의 현관(玄關)에서 약업계의 수부(受附)노릇’.



[그림 12] 남빈정 일대 지도⁵¹⁾(지도의 좌측 하단에 행관(幸館))

지도상에서 남빈〔南濱町〕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자. 행관은 남빈정의 핵심에 위치한 극장으로, 바로 옆에는 사쿠라바 후지오의 경영 회사인 ‘사쿠라바상회(サクラバ商會)’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상회는 남빈정 대화재로 인해 소실된 이후에, ‘사쿠라바(サクラバ)商事(株)’로 다시 태어났다.⁵²⁾ 이 사쿠라바상사의 설립일은 1931년이고, 설립 당시의 주소는 남빈정 2정목 22였으며, 전무이사가 사쿠라바 후지오였다. 이 사쿠라바상사의 행

51) 『부산부』, 『대일본직업별명세도』, 1929~1930년 간행.

52)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3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1933.

정 주소는 1930년대 행정 2정목 46으로 변화하는데,⁵³⁾ 회사 자체의 변화가 아닌 행정구역상의 변화로 여겨진다.

위의 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도) 하단(부)에서부터 サクラバ商會-행관-부산권번이 이어져 있고(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업체가 줄지어 연결되어 있고), 행관 전소 이후 새로운 극장인 소화관이 이러한 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보래관 맞은편 공터에 소화관이 자리 잡게 되는데, 사쿠라바 후지오는 남빈정을 중심으로 한 해안가에 사업(체) 연쇄 블록을 설정한 셈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화관과 사쿠라바 후지오의 사택까지 포함하면, 사쿠라바 후지오와 그의 사업체는 남빈정의 해안가 블록을 타고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존재감은 보래관 이후의 넓은 공지가 개발되면서 그 가치와 영향력이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남빈정 화재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듯이, 행관은 이러한 상권을 끼고 자리 잡은 대표적인 영화관이었다. 상권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보래관이나 부산좌 혹은 상생관(본정)도 행관의 핵심 역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행관은 부산부 상권 중에서도 최고의 핵심을 차지한 극장이었고, 그 만큼 극장 운영에는 유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다. 경영주 역시 이러한 상권을 활용한 사업체를 구상하고 그 혜택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기에, 자신이 관여하는 각종 사업(체)를 집중시키는 선택을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관의 화재는 다시 한 번 그 손실 규모를 상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핵심 상권 지대에서의 화재는 결과적으로 대단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행관의 새로운 건축(화재 대비)을 꿈꾸게 만들었으며, 1930년대 전국 극장 현황을 감안할 때 보다 큰 극장(대극장)의 준공을 겨냥하도록 은근히 종용했다. 기존 행관의 부지는 가격이 높고 인

53)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5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1935.

근 공터가 작아, 차라리 이를 변경시키는 선택을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상권에서는 다소 뒤처지지만, 밀집도가 낮고 그 미래가 밝은 남 빈정의 외곽에 소화관을 짓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IV. 행관의 운영 방식

1. 관람 시설의 변화와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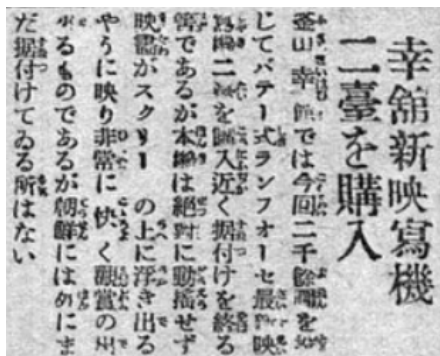
행관은 1915년 새롭게 단장한 이래 다양한 콘텐츠를 상연하는 극장으로 운영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영화상설관을 표방했지만, 다른 장르의 무대 연행 예술에도 그 자리를 대여하곤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화상설관으로서의 입지를 고수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 유력한 증거로 1925년 행관이 구입한 영사기(2대)를 들 수 있다.⁵⁴⁾

행관은 1917년에도 극장을 새롭게 수리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관련 근거에 입각하면, 1917년 9월에는 재개관하면서 부활의 피로연을 개최한 바 있다.⁵⁵⁾ 비록 피로연은 요식적인 행위였을 수 있겠지만, 행관의 재개관을 알리고 부진했던 흥행을 끌어올리려 했다는 점에서 운영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수준 높은 극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각종 방안을 모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극장 시설 확충은 1920년대에도 이어졌는데, 이때 주목되는 사안은 영사기의 구입이었다. 신영사기 구입은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산 극장가에 다시 재개되고 있었던 극장들의 변화 혹은 단장과 맞물려

54) 『부산일보』 1925. 9. 4. 4쪽, ‘행관 신영사기 2대 구입’.

55) 『부산일보』 1917. 9. 28. 4쪽, ‘행관[幸館] 부활 피로연 ; 첫날부터 화려한 개장’.

[그림 13] 행관 부활 피로연⁵⁶⁾[그림 14] 행관의 영사기 구입⁵⁷⁾

있다고 판단된다. 1920년대는 경쟁 극장들의 각종 정비와 시설 확충이 다시 두드러지는 시점으로, 재개장에 나서는 극장들이 출몰할 정도로 경쟁이 제고되는 지점이기도 했다.

이 시기 행관은 새로운 영사기를 구입하여 극장의 관람 여건을 일신하고자 하는 전략을 드러냈다. 이때 경영상의 혁신을 위해 상당한 구매 금액을 감당하는 모색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증거가 1920년대 기사 속에 편린으로 남아 있으며, 1910년대에 이어 1920년대의 이러한 증거들은 결국 변화와 보완이 요구되었던 부산 극장가의 한 흐름을 증언한다고 하겠다.

2. 행관에서의 상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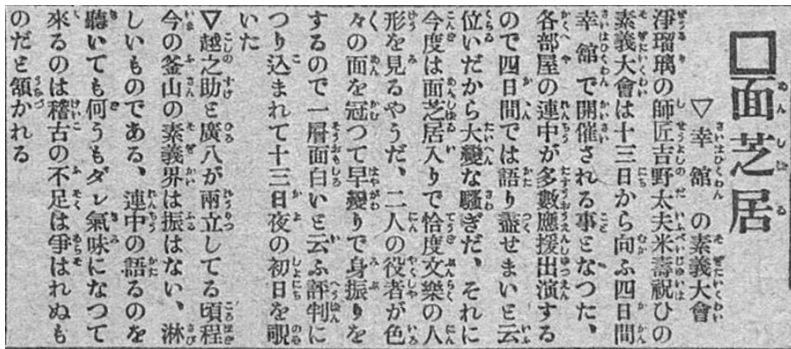
비록 영화상설관으로 행관이 재개관하였지만, 행관에서는 그 이외의 공연도 간헐적으로 펼쳐지곤 했다. 가령 나니와부시 상연,⁵⁸⁾ 소의대회

56) 『부산일보』 1917. 9. 28. 4쪽, ‘행관[幸館] 부활 피로연; 첫날부터 화려한 개장’.

57) 『부산일보』 1925. 9. 4. 4쪽, ‘행관 신영사기 2대 구입’.

58) 『부산일보』 1916. 9. 11. 3쪽, ‘나니와부시[浪花節]이 활동에 들어가다; 행관[幸館]의 길전나양승[吉田奈陽勝]’.

개최(조루리 공연 포함),⁵⁹⁾ 무대행사,⁶⁰⁾ 철도종사원 위안회⁶¹⁾ 등이 그러한 사례에 속하며 권번의 공연이 펼쳐졌을 가능성도 발견된다.⁶²⁾ 특이한 사례로 연쇄극 공연 사례(『이 아이의 부모此の子の親』가 대표적)를 들 수 있다.⁶³⁾



[그림 15] 행관의 소의대회⁶⁴⁾

아무래도 행관은 영화상설관이었던 만큼 주요 상연 레퍼토리는 영화(활동사진)에서 찾을 수 있겠다.⁶⁵⁾ 행관에서 상영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금강석」,⁶⁶⁾ 「김충보」,⁶⁷⁾ 「마쿠베스[マグベス]」,⁶⁸⁾ 「白髮野叉」,⁶⁹⁾

59) 『부산일보』 1918. 5. 15. 4쪽, ‘면[面]연극, 행관[幸館]의 소의대회[素義大台]’. 『부산일보』 1918. 5. 16. 4쪽, “연예계” 부산좌, 행관. 『부산일보』 1918. 5. 18. 4쪽, “연예계” 부산좌, 행관, 태양단.

60) 『부산일보』 1918. 5. 24. 4쪽, ‘송본등수[松本登秀], 오늘 밤부터 행관에서’.

61) 『부산일보』 1918. 2. 13. 4쪽, ‘철도종사원의 위안회; 행관에서 개최’.

62) 『부산일보』 1928. 10. 5. 6쪽, ‘동래권번 위녀[慰女] 어제 4일 행관[幸館]에서 관람總見’.

63) 『부산일보』 1918. 1. 16. 4쪽, ‘연쇄극을 보다; 행관[幸館]의 『이 아이의 부모此の子の親』’.

64) 『부산일보』 1918. 5. 15. 4쪽, ‘면[面]연극, 행관[幸館]의 소의대회[素義大台]’.

65) 『부산일보』 1928. 1. 11. 4쪽, “영화” 행관[幸館]’.

66) 『부산일보』 1916. 12. 6. 5쪽, ‘행관[幸館]의 『금강석』’.

67) 『부산일보』 1917. 2. 3. 5쪽, ‘행관[幸館] 『김충보 金忠輔』; 본지에 연재한 강담’.

「잡항정의 비밀」,⁷⁰⁾ 「敵同志戀の柵」,⁷¹⁾ 「姫百合」,⁷²⁾ 「낙화의 춤」,⁷³⁾ 「춘희」,⁷⁴⁾ 「천보육화찬」[天保六大花撰],⁷⁵⁾ 「선풍아」[旋風兒],⁷⁶⁾ 등을 들 수 있다. 수시로 극장 상영 예제를 바꾸려는 모색을 보였으며, 변사를 활용하여 레퍼토리상의 변화를 가미하려는 동향도 내보였다.⁷⁷⁾ 간런 인사의 방문을 활용한 홍보 행사도 선보인 바 있다.⁷⁸⁾

V. 결론 : 행좌-행관의 일단락과 새로운 극장 소화관의 탄생

부산의 극장가는 1900년대에 대략적인 지형(극장가의 형세)을 대략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1903년 행좌를 비롯하여,⁷⁹⁾ 각종 극장이 행정, 부평정, 남빈정 일대의 일본전관거류지 부산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68) 『부산일보』 1917. 7. 8. 4쪽, ‘행관[幸館]의 「마쿠베스」[マクベス]’.

69) 『부산일보』 1917. 11. 17. 4쪽, ‘행관의 신사진’.

70) 『부산일보』 1917. 11. 29. 4쪽, ‘잡항정의 비밀 ; 30일 밤부터 행관에서 개봉’.

71) 『부산일보』 1918. 2. 2. 4쪽, ‘행관’.

72) 『부산일보』 1918. 2. 22. 4쪽, ‘행관’.

73) 『부산일보』 1925. 7. 8. 7쪽, ‘연예 : 행관’.

74) 『부산일보』 1925. 7. 16. 7쪽, ‘연예 : 행관’.

75) 『부산일보』 1928. 10. 27. 4쪽, ‘애독자를 열광시킨 본지 연재의 「천보육대화찬」[天保六大花撰] 어대전 2일부터 행관[幸館]에서 상영’.

76) 『부산일보』 1930. 7. 4. 4쪽, ‘영화계 ; 보래관, 행관, 상생관’.

77) 『부산일보』 1918. 1. 26. 4쪽, ‘행관[幸館]의 새로운 사진’.

78) 『부산일보』 1925. 6. 9. 7쪽, ‘관처[阪妻] 일행 ; 8일 저녁 내부[來釜] ; 행관[幸館]에서 인사. 『부산일보』 1925. 6. 10. 7쪽, ‘팬의 피를 끓게 한 마키노 배우의 부산 입성 ; 행관[幸館]에서의 인사에 관중 매우 기뻐해’. 『부산일보』 1928. 10. 29. 2쪽, ‘오랜만의 떠돌이 ; 승견[勝見]이 하내산[河内山]에서 부산의 팬을 만나뵙다 행관[幸館]의 「천보육화찬」[天保六大花撰]’.

79) 행좌의 실체가 공인되는 시점이 현재로서는 1903년이지만, 극장 취체 규칙을 감안하면 1890년대로 소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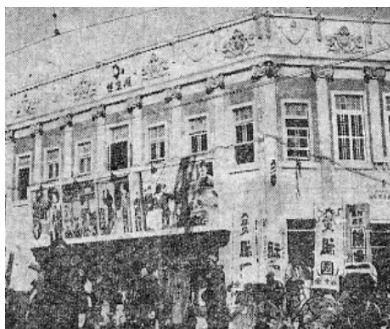
1905년(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경술국치)대에 접어들면 이러한 극장의 수와 집중도는 괄목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10년~1920년대를 거치면서 부산의 장수통(현 광복동) 일대에는 개성과 미려함을 동반한 극장들이 하나 둘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거리는 점차 ‘부산의 극장가’ 혹은 ‘영화가(映畵街)’로 불리게 되었다.⁸⁰⁾ 이러한 부산의 영화가는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6.25 전쟁기에는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과 임시 정부로 인해 한국(남한) 연극 영화의 중심지로 부상한 바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최초 발상지고 창조의 요람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극장가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행좌→행관→소화관’의 변이와 역할을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행좌의 마지막에서 시작하여 행관의 폐쇄에 이르는 과정에 집중하여, 그 중간 단계로서의 행관을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하나의 변전 루트로 설정하고 그 세부 사항을 조명하고자 했다. 그 루트에는 부산의 가장 오래된 극장이었던 행좌가 영화상설관 행관으로 변모해야 하는 시점(1910년대 중반)의 상황과, 행관이 소멸(전소)하며 새로운 극장 패러다임의 적용을 받아 다시 새로운 시기의 극장으로 이전하는 시점(1930년대)의 상황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행관은 부산 영화가의 첫 번째 전환기인 1910년대 중반의 신축 붐을 이끈 극장인 동시에, 1930년대로 이전되는(1920년대 중후반)의 극장 정비 시기와 그 궤도를 함께 하는 극장으로 자리 매김 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인 1916년(10월 31일) 전신 변전좌에서 영화상설관으로 변모한 상생관도,⁸¹⁾ 1920년대 중반에 휴지기를 거

80) 『부산일보』 1937. 3. 27. 3쪽, ‘명장화[明粧化]된 부산의 영화가; 보래관과 상생관의 신축, 당당한 3층의 근대 건축미 실현’.

81) 『부산일보』 1916. 10. 25. 7쪽, ‘본정 1정목 상생관[相生館] 개관식; 오는 31일 거행’.



[그림 18] 개축된 상생관의 외관(1925년)⁸²⁾



[그림 19] 1930년에 신축된
소화관 전경⁸³⁾

192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외관의 변모를 도모하는 부산 극장가의 풍경

지고 극장 정비에 들어간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때 상생관이 우선적으로 치중한 분야는 극장의 외관 정비와 시설 확충이었다.⁸⁴⁾

행관의 전소는 자연스럽게 외관 정비와 시설 확충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다. 극장 폐쇄는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행관은 현대식 극장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렇게 건립된 소화관은 2010년대까지 그 건물의 구조를 유지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현대적 세련미를 갖춘 형태로 축조될 수 있었다. 외관상의 아름다움과 자율적인 개성을 추구하던 부산 극장가의 패러다임에 건축적인 완성도(구조적 안정감)를 부여하는 세밀한 변화까지 가미한 셈이다. 위 좌측 사진에서도 확인되듯, 그 작은 변화는 구조적 안정성과 용도 변경의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이다.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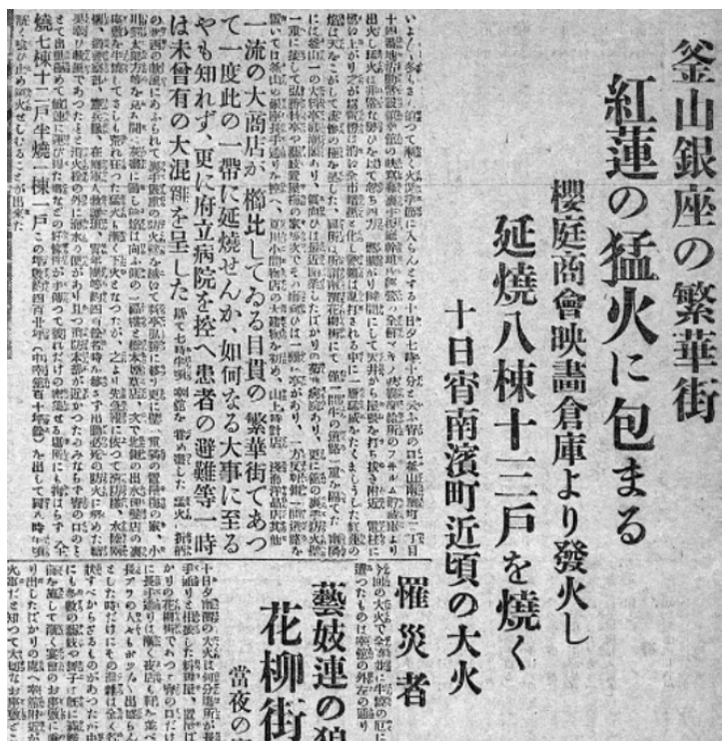
82) 『부산일보』 1925. 11. 15. 7쪽, ‘개축 미장[美裝]한 상생관 피로 흥행’.

83) 홍영철, 앞의 책, 2014, 182쪽.

84) 『부산일보』 1925. 9. 7. 2쪽, ‘상생관[相生館] 개축, 준공은 11월 상순’.

85) 실제로 소화관은 용도 변경을 거듭하며 ‘조선극장’이나 ‘동아극장’으로 운영되었고, 한때는 백화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행관이 부산 극장가에 끼친 또 하나의 변화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행관의 폐쇄(전소)와, 그 이후의 새로운 출발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⁸⁶⁾ 행좌에서 행관으로의 변화가 부산 극장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 것처럼, 행관에서 소화관(후신 격 극장)으로의 변화는 극장가의 중심 이동을 예고했다.



[그림 20] 8동 13호의 피해로 기록된 1930년 남빈정 화재 기사⁸⁷⁾

86) 소화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수행하기로 하고, 이 연구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사항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87) 『부산일보』 1930. 11. 12. 4쪽, ‘부산 긴자[銀座]의 변화가 맹화에 휩싸여’.

행관은 1930년에 폐관한다. 1903년부터 그 존재가 공인되는 행좌로부터 계산하면 27년만의 폐관이고, 1915년 행좌의 개축(중간 신축)으로부터 계산하면 15년만의 폐관에 해당한다. 부산 극장가의 초기 시작이자 중기의 핵심 흥행 극장으로서 행관은 1930년(11월) 남빈정 일대 화재로 전소 붕괴되면서 부산 극장과 극장가(영화가)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여파로 행좌-행관으로서의 영화적 사명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행좌-행관의 오래된 행적은 이후 소화관으로 변형되어 재탄생되는 길을 남겨두고 있었다. 사주에 의한 전략적 폐관은 아니었을지언정, 이러한 폐관 이후에도 역사적 계승이 이어지면서 변화된 부산 극장(가)의 상황을 진단하는 유효한 표식으로 남을 수 있었다.

남빈정 대화재는 행좌/행관의 시대를 자연스럽게 마감하고 새로운 극장을 건립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행관의 마지막 사주였던 사쿠라바 후지오는 화재에 강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지를 굳힌 이후 새로운 개념의 극장 소화관을 기구상 기획했다. 소화관은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되어 화재에 취약했던 기존 극장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로 인해 건물의 내구성마저 빼어나게 설계되어, 그 이후 오랫동안 극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소화관의 건립 위치를 행좌-행관의 기존 위치로 결정하지 않고, 당시 행관과 함께 3대 극장으로 손꼽히던 보래관 근처로 고의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지 변동과 새로운 부지 확보를 통해, 보래관과의 경쟁 체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산 극장가의 새로운 중심 구역을 보래관 구역(부산 극장이 중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확정하려는 의도로 읽어낼 수 있다. 보래관 옆에는 태평관이 이미 자리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⁸⁸⁾ 소화관의 이적과 신축은 극장가의 단순한 이동을 넘어 새로운 중심으로의 집중을 의미한

88) 『부산일보』 1929. 2. 8. 4쪽, ‘태평관의 소패[小唄]를 듣다’.

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동은 앞에서 살펴 본 1929~30년대 행관-보래관 일대의 지도로 설명될 수 있다. 행관은 부산(부) 일본 상권의 최정점에 해당한다. 상생관이 관공서와 상징성으로 부산(부)의 요지를 점유한 극장이었다면, 행관은 상업 시설과 유동 인구의 측면에서 가장 변화한 구역을 점유한 극장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자 이러한 행관의 입지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유지되지 못한다. 그 일차적인 이유는 화재와 그로 인한 극장의 전소였지만, 미묘하게 변화된 부산(부)의 도시 구획도 단단히 한 몫 했다.

서정과 부평정을 중심으로 한 배후지가 주택지로 개발되고 해당 지역에 인구가 몰려들면서 극장가의 요지가 다소 변경된 것이다. 보래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주였던 사쿠라바 후지오는 공지를 찾아 극장의 터를 옮기면서 1930년대 극장 건축과 입지의 유행을 따라 더욱 큰 극장을 건축하는 방향으로 경영 정책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1930년대 대극장 건축 붐은 그 자체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새로운 극장(그것도 대극장)의 건립은 1930년대 현실에서 극장 수익과 안정화를 염두에 둘 때, 행관 폐관 이후에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해당 극장 경영 목표이자 주변 인프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화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소화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로 규명해야 할 몫이겠지만, 적어도 소화관의 탄생에 행관이 크게 기여했고, 또 극장가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러한 소멸과 탄생의 사이클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행관의 도전 욕구와 영화관 운영 전통은 신설 소화관 속에 남았다. 이로 인해 행관 이전부터 행좌가 체현한 극장사의 시작(기원) 역시 행관을 거쳐 소화관으로 그리고 소화관의 이후 변형 극장을 통해 부산의 관객

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체현물이 부산 시민들이 애호하던 극장 조선극장이자 동아극장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김기혁, 『부산 고지도』, 부산광역시, 2008.

김남석, 『조선의 지역 극장』, 연극과인간, 2018.

김승, 『부산대관(신편)』, 선인, 2010.

박섭·장지영, 『부산의 기업과 기업가 단체(1900~1945)』, 해남, 2000.

홍영철, 『부산극장사』, 부산포, 2014.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1~1942년 판), 동아경제시보사, 1921~1942.

2. 논문

김남석, 「인천 표관 연구」, 『민족문화연구』 7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서민원, 「인천 조계지 형성과정과 건축 양식의 특성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11,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09.

3. 자료

『부산일보』 1915. 1. 12. 5쪽, “‘방문기’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씨”.

『부산일보』 1915. 9. 21. 1쪽, “‘사람의 인상’ 부산의 원로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군”.

『부산일보』 1918. 5. 18. 4쪽, “‘연예계’ 부산좌, 행관, 태양단”.

『부산일보』 1918. 5. 16. 4쪽, “‘연예계’ 부산좌, 행관”.

『부산일보』 1928. 1. 11. 4쪽, “‘영화’ 행관[幸館]”.

『부산일보』 1925. 9. 4. 4면, ‘3관의 명화’.

『부산일보』 1916. 1. 15. 5쪽, ‘8만여의 환자; 작년(1915) 중의 부립병원’.

『부산일보』 1928. 10. 5. 6쪽, ‘가을바람의 중심에 서서 (1) 부산 키네마 작품 회황극

[喜活劇] '부서진 협정'.

『부산일보』 1925. 11. 15. 7쪽, '개축 미장[美裝]한 상생관 피로 흥행'.

『매일신보』 1914. 11. 17. 2쪽, '경남공진회, 수상식과 백일회(白日會)'.

『동아일보』 1933. 4. 9. 2쪽, '근고(謹告)'.

『경향신문』 1974. 9. 23. 4쪽, '근세풍물야화(近世風物夜話) 20 기생'.

『부산일보』 1916. 9. 11. 3쪽, '나니와부시[浪花節]이 활동에 들어가다 ; 행관[幸館]의 길전나양승[吉田奈良勝]'.

『부산일보』 1937. 11. 13. 7쪽, '내객(來客)의 백금시계(白金時計를 '크롬(제)'로 교환 사취'.

『동아일보』 1936. 1. 12. 7쪽, '대도시의 부세확장안(府勢擴張案) 11'.

『동아일보』 1934. 11. 19. 3쪽, '대창정(大倉町) 측에서 야시(夜市) 이전 운동'.

『부산일보』 1928. 10. 5. 6쪽, '동래권번 위녀[慰女] 어제 4일 행관[幸館]에서 관람 [總見]'.

『부산일보』 1918. 5. 15. 4쪽, '면[面]연극, 행관[幸館]의 소의대회(素義大會)'.

『부산일보』 1915. 7. 23. 2쪽, '박간[迫間房太郎] 명예 ; 즉위식 대례[御大禮]에 경상남도 조선인 총대로 참열'.

『부산일보』 1915. 1. 8. 2쪽, '박간[迫間房太郎]씨와 임후보'.

『부산일보』 1916. 7. 10. 3쪽,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씨의 바둑장기회'.

『부산일보』 1915. 4. 3. 1쪽,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부산일보』 1918. 9. 27. 3쪽,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과 복영정차랑[福永政次郎]이 도서관에 신문을 기증'.

『부산일보』 1928. 5. 10. 4쪽, '방천각[芳千閣]의 부흥 ; 관조각[觀潮閣] 화려하게 개업'.

『부산일보』 1916. 9. 29.(조간) 7쪽, '보래관[寶來館] 신축'.

『부산일보』 1916. 12. 27. 5쪽, '보래관[寶來館]의 준공'.

『부산일보』 1916. 10. 25. 7쪽, '본정 1정목 상생관[相生館] 개관식 ; 오는 31일 거행'.

『부산일보』 1928. 10. 5. 6쪽, '봉브도이[蜂ブドー] 사은회 ; 관조각[觀潮閣]에서 성대한 연회'.

『부산일보』 1930. 11. 12. 4쪽, '부립병원에서도 환자가 허둥대다 응두산 뒤쪽으로 피난국지[菊池]병원도 위험에 처하다'.

『동아일보』 1930. 11. 12. 3쪽, '부산 남빈정에 대화(大火) 행관(幸館) 전소 3호 반소'.

- 『동아일보』 1939. 5. 7. 7쪽, ‘부산 변화가 장수통 재차(諸車) 야간 통행금지’.
- 『부산일보』 1930. 11. 12. 4쪽, ‘부산 긴자(銀座)의 변화가 맹화에 휩싸여 ; 영정(櫻庭)상회 영화창고에서 발화 8동 13호를 태우다, 10일 밤 남빈정(南濱町) 근처 대화재’.
- 『부산일보』 1929. 4. 23. 3쪽, ‘부산변영회 예회(例會), 25일 저녁 관조각(觀潮閣)에서 열리다’.
- 『부산일보』 1916. 6. 29. 2쪽, ‘부산상업회의소 평의원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정곡의삼랑(井谷義三郎)씨 수해시찰’.
- 『동아일보』 1932. 8. 25. 4쪽, ‘부산의 전차 복선(復線)을 착수’.
- 『동아일보』 1930. 1. 10. 5쪽, ‘사진 대흑남해당영업소’.
- 『인천일보』 2016. 12. 21., ‘사진에 비친 인천 100년(22)’.
- 『부산일보』 1916. 7. 16. 2쪽, ‘삼랑진 벼 입찰 ; 1천8백석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씨에게 낙찰’.
- 『부산일보』 1925. 9. 7. 2쪽, ‘상생관(相生館) 개축, 준공은 11월 상순’.
- 『부산일보』 1930. 7. 5. 4쪽, ‘서원송별회 관조각(觀潮閣)에서’.
- 『부산일보』 1918. 5. 24. 4쪽, ‘송본등수(松本登秀), 오늘 밤부터 행관에서’.
- 『부산일보』 1928. 5. 31. 3쪽, ‘수정동 산림 7천원에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씨 매수’.
- 『부산일보』 1928. 10. 27. 4쪽, ‘애독자를 열광시킨 본지 연재의 ‘천보육대화찬(天保六花撰)’ 어대전 2일부터 행관(幸館)에서 상영’.
- 『부산일보』 1918. 1. 16. 4쪽, ‘연쇄극을 보다 ; 행관(幸館)의 ‘이 아이의 부모(此の子の親)’’.
- 『부산일보』 1925. 7. 16. 7쪽, ‘연예 : 행관’.
- 『부산일보』 1925. 7. 8. 7쪽, ‘연예 : 행관’.
- 『부산일보』 1917. 2. 5. 3쪽, ‘연예풍(演藝風) 부록 ; 행관, 상생관, 생구일좌, 동양좌’.
- 『부산일보』 1930. 7. 4. 4쪽, ‘영화계 ; 보래관, 행관, 상생관’.
- 『부산일보』 1928. 10. 29. 2쪽, ‘오랜만의 떠들썩함 ; 승견(勝見)이 하내산(河內山)에서 부산의 팬을 만나뵙다 행관(幸館)의 ‘천보육화찬(天保六花花撰)’’.
- 『동아일보』 1938. 12. 8. 7쪽, ‘원가육십할폭리(原價六十割暴利) 악덕 상인 적발 부산서 엄중 경고’.
- 『매일신보』 1914. 11. 3. 3쪽, ‘인천활동사진관의 대성황’.

- 『동아일보』 1938. 1. 8. 4쪽, '인환불능(引換不能) 정지시(停止時) 우선변제(優先辨濟)를 규정(規定) 상품권취체령개정(商品券取締令改正)'.
- 『부산일보』 1917. 11. 29. 4쪽, '잠항정의 비밀; 30일 밤부터 행관에서 개봉'.
- 『부산일보』 1915. 9. 11. 2쪽, '전 조선 상업회의소연합회 위원; 부산에서는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회두와 산본순일[山本純一] 부회장 참석'.
- 『부산일보』 1928. 12. 27. 1쪽, '전기부영문제 제2회 부산부민대회 목도[牧島] 제2 행관[幸館]에서 열리'.
- 『동아일보』 1940. 2. 2. 3쪽, '전차 충돌로 승객 1명 중상'.
- 『부산일보』 1915. 10. 25. 3쪽, '조선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활동상설관; 부산 행관의 신축'.
- 『매일신보』 1916. 1. 14. 2쪽, '조선경찰 창립'.
- 『개벽』(34호) 1923. 4. 1. 18쪽,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 一部發表'.
- 『조선급만주』(100호) 1915. 11., '朝鮮産業의 發展策'.
- 『동아일보』 1930. 1. 10. 5쪽, '조선의 현관(玄關)에서 약업계의 수부(受附)노릇'.
- 『동아일보』 1923. 6. 11. 3쪽, '직공촉전즉사(職工觸電即死)'.
- 『부산일보』 1928. 5. 8. 3쪽, '진영의 춘정농장[村井]은 154만원으로 곧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씨가 매수'.
- 『동아일보』 1930. 3. 29. 7쪽, '질주자동차(疾走自動車) 전차(電車)와 충돌'.
- 『부산일보』 1925. 9. 4. 4쪽, '천춘자[泉春子]와 행관주[幸館主] 앵정군[櫻庭君]의 부산에서의 기념촬영'.
- 『부산일보』 1918. 2. 13. 4쪽, '철도종사원의 위안회; 행관에서 개최'.
- 『부산일보』 1925. 11. 19. 7쪽, '키네마; 행관, 상생관, 보래관의 상영소식'.
- 『부산일보』 1929. 2. 8. 4쪽, '태평관의 소패[小唄]를 듣다'.
- 『부산일보』 1925. 6. 9. 7쪽, '판처[阪妻] 일행; 8일 저녁 내부[來釜]; 행관[幸館]에서 인사'.
- 『부산일보』 1925. 6. 10. 7쪽, '팬의 피를 끓게 한 마키노 배우의 부산 입성; 행관[幸館]에서의 인사에 관중 매우 기뻐해'.
- 『부산일보』 1916. 4. 28. 5쪽, '활동사진상설관 옥관[旭關] 재건축; 행관[幸館] 이상을 건축'.
- 『부산일보』 1925. 9. 4. 4쪽, '행관 신영사기 2대 구입'.
- 『부산일보』 1917. 2. 3. 5쪽, '행관[幸館] '김충보[金忠輔]'; 본지에 연재한 강담'.
- 『부산일보』 1917.9. 28. 4쪽, '행관[幸館] 부활 피로연; 첫날부터 화려한 개장'.

- 『부산일보』 1916. 12. 6. 5쪽, ‘행관[幸館]의 ‘금강석’.
『부산일보』 1917. 7. 8. 4쪽, ‘행관[幸館]의 ‘마쿠베스[マグベス]’.
『부산일보』 1918. 1. 26. 4쪽, ‘행관[幸館]의 새로운 사진’.
『부산일보』 1918. 2. 22. 4쪽, ‘행관’.
『부산일보』 1918. 2. 2. 4쪽, ‘행관’.
『부산일보』 1917. 11. 17. 4쪽, ‘행관의 신사진’.
『부산일보』 1915. 10. 15. 5쪽, ‘행좌[幸座] 개축공사; 모범적 활동 선진 상설관’.
『부산일보』 1916. 6. 26. 1쪽, ‘회의소 평의원의 용모; 하사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씨’.
『동아일보』 1938. 6. 5. 7쪽, ‘훈계하는 구장(區長)에게 폭행하려다 피체(被逮)’.
『개벽』(34호) 1923. 4. 1. 67쪽, 소춘(小春), ‘釜山の 貧民窟과 富民窟 - 南海一帶를
어름 지내든 追憶’.

투고일 : 2019. 06. 03. 심사완료일 : 2019. 07. 05. 게재 확정일 : 2019. 07. 25.
--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Meaning of
Busan Theaters Street through the new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aenggwan

Kim, Nam-Seok

Haengjwa is the first theater in Busan. Since 1903, the existence of Haengjwa has been proved, and this Haengjwa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w theater hall in 1915. The change from Haengjwa to Haenggwan does not mean only a silent theater change. The establishment of Haenggwan means the new boom of Busan's theaters street, which began to be built around Haengjwa. This new boom can help to understand the fluctuations of Busan's coastal theaters street. At the time of the 1910s boom, the Kabuki-style theater which had been around since the 1900s was withdrawn(upgraded/ renovated), and the number of permanent theaters increased, and Busan's theaters street was temporarily restructured. Haenggwan, together with Boraegwan and Sangsaengkwan, became the leading theater of this trend. Then in 1930 Haenggwan was in a crisis again due to a big fire in Nambinjeong. At the same time, the natural transformation of Haenggwan has become a key driving force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Busan theater market, in line with the opening of the theater exterior since the mid-1920s. 櫻庭藤夫(Fugio Sakuraba), who was the owner of the Haenggwan in the 1920s, planned a new theater that could replace the burnt Haenggwan. However, the theater was built under the new name Sohwaegwan on the site near the competition theater Boraegwan, not the place where it was originally located. Since then, Boraegwan and

Sohwagwan have operated as competition theaters facing the road. Since independence, both theaters have emerged as important cinematic assets of Busan. Especially after a lifetime as a movie theater, Sohwanagwan still remains a past heritage of the BIFF square.

Key words: Haengjwa, Haenggwan, Boraegwan, Sangsaengkwan, Sohwanagwan, movie theater, local theater, Busan